

여성경영인들과 경영에 관심이 있는 여성들을 회원으로 하는 전국여성경영인총연합회가 25일 대한상의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이날 초대회장으로 선출된 李潤美회장(52·東亞紙器공업대표)은 인사말을 통해 『여성들간의 경영정보 교환과 여성경영인상 정립



李潤美회장

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특히 회원들이 경제현실과 정책에 대한 감각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종 세미나 및 강연회를 자주 열고 회원사간의 사업협력 및 교류방안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여성경영인총연합회는 기업체대표만을 회원으로 하는 기존 여성경영인 단체와는 달리 이사급 이상

『여성경영인총연합』 탄생

93.6.26

기업경영 관심있는 누구나 가입가능

경제 5단체장 고문으로 영입키로

여성간부나 기업체 대표부인은 물론 기업경영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2백50명의 회원을 증약 1백70명이 회사대표이며 나머지 80여명이거나 기업체대표의 부인들이다.

여성경영인 총연합회는 또 대한상의 전경련 무협중소기업중앙회 경총중앙경제5단체회장과 李愚榮중소기업은행장을 고문으로 위임받는다. 각각적으로 지원받는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여성경영인총연합회가 창립을 기념하면서 이날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경영인들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사회의 부정적 인식(37.1%)이었고 이 밖에 사회생활과 가사의 병행(35.3%), 남성부하직원과의 마찰(10.0%) 등으로 주요 장애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李康雲)